

사회적농업을 통한 공동체 돌봄 실천 사례연구

김자경* /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김흥주 /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

한태호 / 제주사회적농업연구회 회장

이현진 /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I. 연구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공동체 돌봄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지의 공백, 돌봄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돌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공동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들이 왕성해졌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공동체 돌봄의 구체적인 사례로써 사회적농업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농업은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사회혁신을 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농촌에 사는 주민 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실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은 인구

* **김자경**(sojuno1@hanmail.net): 주류 경제학 중심의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로컬푸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커먼즈/공동자원 그리고 마을로 연구의 주제가 계속 바뀌고 있다. 주말에는 제주 '달빛숲감굴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구조의 변화, 농촌 소외와 정책의 부재, 복지시설의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품고 있어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회적농업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농업의 실천 공간인 사회적농장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참가자에게 교육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설계되어 있다. 한편 한국에서 사회적농업은 정책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법 제도가 정비되면서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사회적농업 실천 현장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농업의 정책과 제도화 경로의 과정에서 사회적농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회적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공동체 돌봄의 논의를 통해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적농업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 공동체 돌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공동체 돌봄의 특성을 4가지로 추출하여, 이 특성이 실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완주와 제주의 사회적농장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농업의 실천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해소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사례 선정

이 연구는 사회적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공동체 돌봄에 주목한다. 이러한 활동 사례의 내용 소개와 의미를 탐색하고 공동체 돌봄으로서 사회적농업 실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개인, 집단 또는 조직과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보편적인 연구 방법으로 사용된다. 사례연구는 단일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에 관한 연구이며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Stake, 1995). 사례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수집한 연구자료는 주로 사례의 사회적농장 내부에서 기록된 문서 및 기록정보, 주요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집한 구술자료, 참여 관찰 시 수집한 관련자들의 인터뷰 자료와 연구자가 기록한 관찰 기록 등이다.

사례연구에서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의 수보다는 전략적인 사례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의 모법인의 형태가 다른 농장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적농업을 바라보거나,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적농업을 바라보는 경우 모법인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농업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적농업의 유형이 다른 곳을 선택했다. 사회적농장 유형과 서비스공동체 유형에 따라 연결망 형성과 관계 형성이 다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례의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농업의 연결망이 서로 다른 곳을 선택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적경제 분야가 양적으로 성장하며 지역별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농업에 대한 관심도는 다르다. 따라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진영이 사회적농업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농업의 실천 정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지역 돌봄 문제를 사회적농업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이에 이 연구의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사회적농업 사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농업 사례를 선정하였다. 완주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두레농장을 활용한 지역사업을 펼쳐온 곳이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두레농장 사업이 부진하던 상황에 2018년 무렵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를 통해 사회적농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주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다. 2018년부터 제주형 사회적농업 구축 TF팀을 운영하고 그 성과로 ‘제주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2019년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며 제주형 사회적농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 농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1개소를 포함하여 ‘제주형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4개소를 선정, 총 5곳의 사회적농장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지역 사회적농업 활성화와 지속을 위해 ‘제주 사회적농업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사회적농업에 대한 선진적인 실천과 제도 구축의 경험이 있다는 점, 지역의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 조직이 있고, 이를 통해 다

양한 형태의 사회적농장을 살펴볼 수 있기에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적농업 추진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헌 연구를 통해 사회적농업의 개념과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공동체 돌봄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정리했다. 현장 연구는 6월과 8월에 두 차례 진행했다. 제주의 현장조사에서는 한살림제주 생활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한살림제주 생산자회, 제주사회적농업연구회 구성원들과 면담하였다. 완주의 현장조사에서는 완사넷의 도움을 받아 은혜의 농장을 비롯하여 사회적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맥락을 전해줄 주요 정보제공자와 면담하였다. 또한, 완사넷과 간담회를 통해 완주의 사회적농업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1. 사회적농업에 대한 논의

1.1. 사회적농업의 추진 과정

한국에 사회적농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는 2016년부터라 판단된다. 2016년부터 사회적농업에 관한 선행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농정연구』에서 특집으로 사회적농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며 관련 논의가 확산되었다. 여기에서 특집호를 사회적농업으로 기획하게 된 이유는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농업의 다기능성과 사회 전체의 공유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농업에 주목했다고 밝히고 있다(황수철, 2017: 6-7). 다기능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을 먹거리 생산공간이 아닌 생활, 경제, 환경, 문화, 휴식, 교육 등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농업에 관한 해외 사례연구¹⁾가 소개되

고 개념이 정립되고 있지만, 농업·농촌의 현장에서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빠르게 실행되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포함했고, 2018년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김영란·조미형, 2023: 11).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중위기 속에서 당시 정부는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농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김정섭·김수린·하인혜, 2022: 3). 2019년 제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댄 것이다. 2023년에는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적농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갖췄다.

정부 주도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회적농업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농장은 2018년 9개에서 2023년 현재 전국 92개소에 이른다.²⁾ 2024년에는 명칭이 농촌 돌봄농장으로 변경되었고 15개소가 더 선정되었다. 이처럼 사회적농업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고 제도화되며 이를 실천하는 사회적농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천 현장에서는 느끼는 혼돈은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농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체의 문제와 이들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현실적인 사안들(전용일, 2019)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채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법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지역에서 치유농업사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농장이 치유농장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2023년까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해 ‘사회적농장’으로 불리던 것이 2024년부터는 ‘농촌 돌봄농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농업의 개념은 현장에서 더욱 모호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농업 정책과 법 제도가 달리 적용

1) 한국에서 사회적농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럽의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 사회적농업 포털(<https://www.socialfarm.kr>) 참조. 단 제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농장과 별개로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농장을 선정하였다. 이를 제주형 사회적농장이라 부르며 현재 3개소가 있다.

되니 실천 현장에서는 목적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 돌봄농업을 혼용하여 사용하며 이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지원사업 초기에 선정된 농장과 최근 선정된 농장 사이에도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 활동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란·조미형(2023)은 이론으로 정립된 사회적농업이 농촌 실천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적농업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이들을 사회로 통합하는 길목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배제된 이들에 대한 동정과 편견이 사회적농업을 운영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사회적농업은 농업과 복지, 돌봄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며 농촌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장으로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회적농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우려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가치와 특징을 검토하고 그 정체성과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1.2. 사회적농업의 개념

사회적농업에 대한 개념은 관점과 이해에 따라 다양하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 개념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농업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았다(황수철, 2017; 임송수·임은지, 2017). 김정섭은 다원적 농업에 더해 지역사회 기반 복지 실천이 결합한 형태의 사회적농업을 강조하며 사회적농업의 가치를 확장하였다. 그는 사회적농업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사회통합,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농업 실천이라고 보았다(김정섭, 2017: 34). 이아코보·오코너(Iacovo and O'Connor, 2009)는 사회적농업을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 기반한 돌봄이라는 두 개의 개념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이는 전통적인 농촌의 자조연결망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의 복지체계에 속한 비공식적 사회연결망과 농업 자원에 기초한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김정섭, 2020: 19). 유럽에서 사회적농업은 1960년대부터 개별 농장이 실천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의 요구를 충

족하거나 사회·돌봄·교육 부문에서 직업으로 실천하고, 농업의 집약화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의 발현 등 마을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점차 발전되어 왔다(Iacovo and O'Connor, 2009). 2000년대 들어서 유럽의 사회적농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돌봄(caring)과 치유(healing) 등의 농업의 다기능성을 발휘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됐다(Hassink, 2009).

사회적농업의 이러한 개념에 따라 그 실천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농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에 기반한 협동과 연대 활동을 전개한다(유리나·황수철, 2019: 153). 사회적농업은 농민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농사 경험과 실천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과 공유하는 실천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농업은 사회적 포용의 특성을 갖는다(김정섭, 2023: 8). 둘째, 문제해결 과정을 모두 농업인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공무원,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만나 새롭게 관계를 맺고 실천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의 특징을 갖는다(유리나·황수철, 2019: 153). 이처럼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넘어 사회문제와 농촌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농업·농촌 실천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그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섭(2017)은 사회적농업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노동 통합형, 돌봄형, 교육형으로 구분하였다. 노동 통합형은 일자리가 없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실천이다. 돌봄형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 요인과 결합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실천이다. 교육형은 기술·지식 등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 혹은 농업이나 농촌을 접한 적이 없는 도시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거나 농촌을 포함한 전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돕는 실천을 말한다.

최근 들어 사회적농업의 돌봄 기능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농업이 가지는 공동체적 돌봄 특성이 농촌과 사회에 확산한 돌봄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돌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회적농업을 농업·농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농업을 통한 농촌의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지향적 실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농업이 갖는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다.

2. 돌봄과 공동체 돌봄에 대한 논의

2.1. 돌봄의 재구성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돌봄’이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다. 삶의 한 권에서 보이지 않게 수행되는 비공식 복지로서 돌봄이 아니라, 돌봄을 삶의 중심에 놓고 돌봄을 재구성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돌봄은 삶의 필수적 구성요소이자 모두의 삶에 관련되었기 때문이다(석재은, 2020: 3). 『돌봄선언』에서는 돌봄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돌보는 공동체는 영국 프레스턴, 미국 클리블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의 협동조합 활동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례들은 협동조합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공동체 자산을 형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용한 공공자원을 구조화했다. 이를 통해 상호부조를 쉽게 하고, 공동체 운영방식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의 사회 생태계를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지방자치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기도 했다(더 케어 컬렉티브, 2021: 104-111). 그리고 보편적 돌봄을 대안 사회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보편적 돌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모든 돌봄이 우리의 가정에서뿐 아니라 친족에서부터 공동체, 국가, 지구 전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 되는 것”이다(더 케어 컬렉티브, 2021: 41). 이러한 논의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 지우지 않고 국가, 시장,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논의에 연결된다(최영, 2024: 13-14).

한국에서 돌봄의 사회화는 공적 돌봄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확장되었다(석재은, 2020: 1). 공적 돌봄은 주로 국가 개입을 통해 돌봄 노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최영, 2024: 14).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제도, 방과 후 아동 돌봄 지원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적 돌봄 제도가 정비되며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공공기관이 모든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공공기관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정부는 돌봄 서비스 시장을 확대했다. 그 결과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는 민간기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류연규, 2012: 148).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일자리는 사회복지 일자리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조귀동, 2023: 144).

2018년 이후 공적 돌봄에 변화가 나타났다. 공적 돌봄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³⁾을 발표하고,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영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오영인, 2019: 17 재인용).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4년간 노인 통합돌봄,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 정착,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노숙인 자립 지원으로 나뉘어 시행되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분절화된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2023년 정부가 바뀌면서 이 사업의 명칭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되었고, 사업 대상은 노인으로 한정되었다.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에게 부담되는 비공식 복지의 개념을 넘어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공적 돌봄이 제도화되고 있지만, 그 한계는 크다. 공적 돌봄이 돌봄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제도화된 공적 돌봄은 “기본적으로 시설화를 촉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김보영, 2021: 48). 예를 들어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 동네에서 살면서 받는 서비스는 1등급의 경우 하루 4시간이 최대이며, 나눠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시설에 들어가면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요양 보험제도로 인해 돌봄의 무게가 경감되기는 하지만 가족의 희생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가족들은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류연규(2012)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느냐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돌봄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민간기관이 주로 공급하는 돌봄 서비스 시장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류연규,

3)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orea.kr/goNews/resources/attaches/2018.06/07/2bfdc3fdf305bd123b188163d6434e5d.pdf>

2012 : 121). 실제로 ‘돌봄의 시장화’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적 돌봄이 강화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2.2. 공동체 돌봄에 대한 논의

한편 지역공동체가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 돌봄으로서 ‘돌봄의 사회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공동체 돌봄은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의 무게를 지역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공동체 돌봄에 관한 사례연구는 주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주체가 되어 돌봄 활동을 한 사례연구와 최근 공동체 논의에서 대두되고 있는 커먼즈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경제가 주체가 되어 나타나는 공동체 돌봄은 주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수정(2012)은 마포 두레생협의 노인 장기 요양 보호 기관인 어깨동무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동체 돌봄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마을의 인프라 자산과 인적 자원이 중요함을 밝혔다. 어깨동무와 생협 조합원 활동의 연계는 돌봄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의 인프라를 연결하여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동체 돌봄 문화를 끌어냈다. 이러한 공동체 돌봄은 기존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메웠으며, 여성들이 전담했던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시도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느슨한 연대는 강한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었다.

마포 두레생협은 2013년 울림 두레생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돌봄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를 ‘생협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조합원들의 돌봄 욕구에 대응할 인력 양성의 문제, 돌봄 사업의 재정적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지만, 기존 조합원 중심의 활동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높여가는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이현진·김흥주, 2015). 생협 복지는 “정부와 같은 공적 영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이용자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돌봄의 중요한 사례이다(김흥주·이현진·김철규, 2013: 189).

조유성(2020)은 한살림서울 생협의 돌봄에 대해 분석하면서, 생협 복지를 생협 돌봄으로 수정해서 사용했다. 복지는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한 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돌봄은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서로 돌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조

유성, 2020: 92). 한살림서울 생협의 돌봄 정책 비전과 원칙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돕고 존중하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근거지에 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조유성, 2020: 93).

한살림서울 생협은 2012년 돌봄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한살림 생협의 연합 차원에서 돌봄의 필요를 협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살림 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탐색하였다(장지연, 2016: 91-92). 2005년에 한살림 생협의 비전이 농업살림, 밥상살림, 생명살림에서 지역살림이 추가되었지만, 그동안 한살림 연합과 각 지역 생협에서는 지역살림 운동이 구체화 되지 못했다. 한살림서울 생협의 돌봄에 대한 고민은 지역살림 운동의 의제로 ‘돌봄’을 부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협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돌봄의 사례는 돌봄의 위기를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공동체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돌봄 위기의 대안으로 커먼즈 개념을 도입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커먼즈는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대안적 사회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백영경, 2017: 116). 따라서 기존의 복지와 공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화된 돌봄을 지양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커먼즈의 개념은 돌봄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백영경은 복지와 커먼즈를 매개하는 개념으로 복지 커먼즈를 제안했다. 복지 커먼즈는 “공공서비스, 의료, 건강의 상품화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생존에 위협을 느낀 공동체들이 자원을 가지지 못해 시민으로 사는 삶을 박탈당해온 현실에 대한 저항”이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적인 자원을 공동체가 확보하여, 이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지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백영경, 2017: 134). 홍덕화(2018)는 여기에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의 측면에서 복지 커먼즈가 만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살림서울의 돌봄 사례를 분석하며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강화하여 돌봄과 의료, 건강, 일자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모델”의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돌봄 운동의 이상과 돌봄 실천의 현실에는 매우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공동체적 관계의 확산을 꾀하는 방식으로써 돌봄 활동이 기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한살림 서울의 돌봄 활동이 시장화된 복지서비스의 대행이 아니라 한살림이 지향하는 지역살림 운동이자 복지 커먼즈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공동체에서 돌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례가 등장했다(박윤희,

백일순, 2021). 한국 복지의 성격을 드러내는 개인(가족) 자산기반 복지국가의 형태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산이 바로 아파트이다. 아파트 가격의 등락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공동체 문화가 부재한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강한 한국에서 이러한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아파트(민간임대주택) 위스태이 별내에서 입주민들이 틈새 돌봄(공동육아)을 하는 사례를 분석한 박윤희와 백일순(2021)은 돌봄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커먼즈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때 커먼즈는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아래로부터의 권력 형성” 즉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틈새 돌봄은 긴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활동가를 연결하여 아파트 내에서 아이를 돌보는 프로그램이다(박윤희, 백일순, 2021: 234). 틈새 돌봄은 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아래로부터 주민공동체를 조직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었던 돌봄이었고,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했다(박윤희·백일순, 2021: 238-239). 틈새 돌봄은 공적 돌봄에서도, 시장화된 돌봄에서도 할 수 없는 공동체의 유연한 돌봄 대응이었다.

2.3. 공동체 자산기반 돌봄 사회를 지향하는 공동체 돌봄의 특성

앞서 공동체 돌봄의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공동체 돌봄은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자산이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 자산은 물적 토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동체 돌봄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참여자들이 스스로 계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이현진, 김홍주, 2022: 92).

공동체 돌봄은 공동체 자산으로서 돌봄의 장이 마련되고, 지역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공동체가 돌봄의 운영방식에 의미 있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쉽게 협력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힐러리 코텀, 2020). 이렇게 공동체 돌봄의 조건들이 갖춰지면 돌봄 서비스를 상품화되지 않게 하며, 지역의 여러 자원을 이용하며 협력할 수 있고, 국가의 공적

돌봄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공동체 돌봄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적 돌봄과 공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써 공동체 돌봄이 갖는 특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공동체 돌봄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남훈(2021)은 공동체 돌봄을 주민이 주체로서 돌봄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에 참여하는 체계를 공동체 돌봄이라 개념화하면서, 그 특징을 주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 방법을 계획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돌봄의 주체로서 주민의 협력과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보았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욱 여실한 지리적 불리함, 물적·인적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공적 돌봄체제로 충당할 수 없는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에 농촌 지역 특성에 기반한 돌봄을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은정(2015)은 휴먼 서비스 공급에서 관료제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공동체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적 접근의 핵심적 속성을 지역성과 참여성으로 정리하였다. 이현진·김흥주(2022)는 농촌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적농업의 가치 확산을 주장하며, 사회적농업의 공동체 돌봄 실현 조건으로 참여자의 당사자성, 지역사회 기반 자원 활용, 관계 중심의 실천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공동체 돌봄에 대한 개념과 사례, 특징을 검토한 결과 공동체 돌봄의 특성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체성이다. 국가 중심의 복지는 전문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급자에서 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돌봄의 공급자와 수혜자가 이원화되고, 이 둘은 모두 사회적 약자가 다수이다. 그러므로 돌봄의 공급자나 수혜자는 자기 결정권이 없다. 한편 복지의 관점에서는 당사자주의의 중요성이 드러났다(이미정·주경희·남세현·우승명, 2019). 한국의 복지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70년대는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복지를 시작했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대규모 이용시설과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이 확대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때 장애인 자립생활을 중시하게 되면서 ‘탈시설’ 운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김용득, 2018: 495-496). 일본 베델의 집 사례(오세근·이명호, 2022)와 이탈리아의 정신보건 개혁 과정(백재중, 2018)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돌봄은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돌봄 지원”(김용득, 2018: 504)을 하

는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돌봄의 주체가 된다. 공급자와 수혜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더불어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지역의 주체성이 중요하다.

둘째 연결성이다. 공동체 돌봄은 지역사회의 수많은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김승섭(2017)은 사회역학 연구자인 리사 버크먼의 사회적 관계망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서로 연결될수록 건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공동체 돌봄의 중요한 속성이 연결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연결한다는 의미는 서로 기대어 상호의존하고, 상호의존을 통해 자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야스토미 아유무는 “자립은 의존하는 것”이라 했다. 자립은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의존하는 대상이 늘어날 때 더욱 자립한다고 한다(야스토미 아유무, 2018: 19-37).⁴⁾ 그래야 돌봄이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수 있다. 사람은 의존하는 상대가 줄어들면 종속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가족이나 시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김용득은 “상호의존을 조직화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삶과 돌봄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다(김용득, 2019: 220). 우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장소와 연결되고, 그 연결 상대가 다양할수록 주체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자립을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의존할 상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佐野真紀, 2019). 의존할 상대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결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 돌봄은 연결될수록 자립할 수 있기에, 다양한 형태의 상호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연결망 또는 협력망 구성이 중요해진다. 지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자원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성이다. 공동체 돌봄과 개인/가족 기반 돌봄, 그리고 국가에 의한 공적 돌봄은 돌봄 주체 간 관계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에 의한 공적 돌봄의 형식으로 설계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역시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돌봄은 수혜자와 제공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생산되기에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돌봄은 두 주체 간 관계에 기반하여 공동 생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정, 2015: 158). 즉 돌봄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의 연결 그 이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돌봄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4) 야스토미의 자립에 대한 명제는 원래 경제학자인 나카무라 히사시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들을 연결할 때, 주체에 따라 어떤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긴 시간 동안 서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지역의 어린이처럼 농장에 놀러 오며 두루두루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힐러리 코탐은 “관계가 변화를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좋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문제라 지적했다(힐러리 코탐, 2020: 122). 공동체는 대부분 결속적 관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한 유대감을 통해 이웃끼리 연대하고 돌봐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강한 연대는 결속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느슨한 연대와 같은 교량적 관계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워한다(힐러리 코탐, 2020: 123). 공동체 돌봄은 교량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자주 만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꾸준히 반복해서 즐거운 일을 하며 교류할 때 관계는 필수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에릭 클라이넨버그, 2019: 19).

넷째, 자산기반성이다. 지역에서 돌봄의 장은 지역공동체 자산이 된다. 김용득은 돌봄에서 지역 자산 중심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돌봄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거부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득, 2019: 220). 더 케어 컬렉티브(2021)의 논의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에 의한 돌봄 체제에는 공동체 자산의 구축과 생산에 관한 통제권뿐 아니라 민주적인 소유권과 통치에 대한 구조적 지원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체 자산에서 중요한 점은 자치의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의사결정 하여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이 공동체 돌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스테인 별내 아파트 공동체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커먼즈로서 돌봄이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돌봄의 장은 사회 인프라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 인프라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아무 곳이나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유대를 만드는 장소를 의미한다. 여러 공공시설 등의 공공 인프라도 있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지 않아서 사회 인프라와는 다르다. 공동체 돌봄의 장은 사회 인프라가 되어 사람들의 접촉제 역할을 하며 삶에 필요한 교량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에 참여하며 튼튼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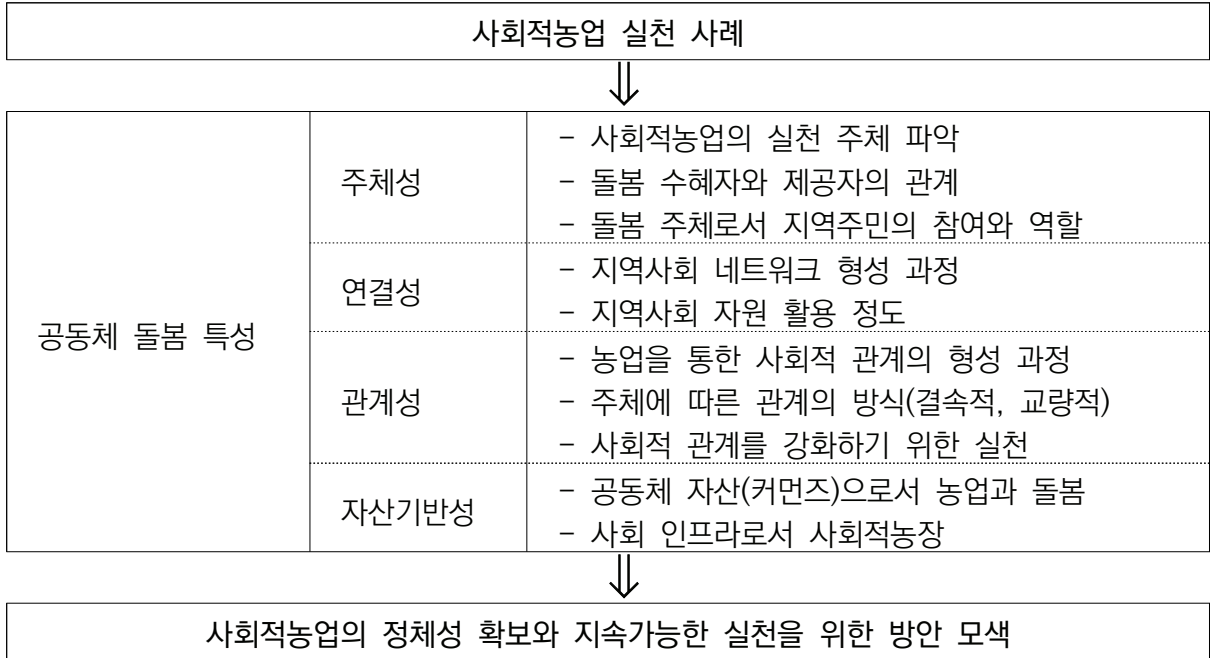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체 돌봄의 특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공동체 돌봄은 돌봄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공동체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연결되어 서로 의존하며 자립을 꾀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돌봄은 구성원들이 대등하고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인프라로서 공동체 자산이 된다.

3. 공동체 돌봄으로서 사회적농업 분석을 위한 분석 틀

사회적농업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며 공동체 돌봄으로서 사회적농업을 조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농업이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의 기제로 주목받는 이유는 사회적농업이 가지는 공동체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사회적농업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만들어내기에 사회혁신이 가능하다. 농장을 기반으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지역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고 연대하며 협력 연결망을 형성하기에 공동체 회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이효진, 2020). 이러한 점은 사회적농업 실천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의 여민동락 공동체는 주민이 이웃 주민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는 관점으로 지역 돌봄을 함께 만들어 갔다(이현진·김흥주, 2022: 110). 전북의 키울협동조합은 사회적농업을 통해 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이효진, 2020). 만성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사례에서도 새로운 돌봄체계의 대안으로서 공동체 돌봄을 가능하게 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현진·김흥주, 2022: 11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농업은 공동체 돌봄 및 농촌 공동체의 자산으로서 중요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이현진·김흥주, 2022: 112-113), 이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돌봄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공동체 돌봄의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 연구의 개요와 분석틀



〈그림 2-1〉은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개요를 제시한 것이다. 공동체 돌봄의 특성으로 주체성, 연결성, 관계성, 자산기반성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사회적농업의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사회적농업 실천과정에서 주목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성의 특성에서는 사회적농업의 실천 주체들은 누구이며, 돌봄의 당사자는 사회적농업에 어떻게 참가하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우선 사회적농업 활동으로 충족되는 돌봄 실천과정에서 수혜자와 제공자의 관계는 공적 돌봄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동체 돌봄의 핵심 주체인 주민들이 사회적농업에 참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공동체 돌봄의 주체성 정도를 파악할 것이다. 둘째, 연결성의 특성에서는 사회적농업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과정과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관계성의 특성에서는 농업을 통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사회적농업의 노력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농업에 참가하는 주체들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관계의 방식 및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산기반성의 특성에서는 사회적농업의 실천 결과

인 농업과 돌봄이 공동체 자산으로써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의 실천 무대인 사회적농장은 지역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 틀과 분석내용에 근거하여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적농업 실천이 공동체 돌봄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

1. 완주지역 사회적농업과 사회적농장

1.1. 완주지역 사회적농업 발달 배경

완주군은 2008년 무렵부터 지역 농업을 살리고 농촌 마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복지 부문의 사업으로 ‘농촌노인복지형 두레 농장사업⁵⁾’이다. 이는 마을의 고령 노인 돌봄과 함께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농업이 지향하는 농업을 통한 돌봄과 사회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레농장 사업은 10년이 지나면서 마을의 인구감소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두레농장은 자연마을 거점에서 지역 면 단위 거점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8년 완사넷은 완주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온 로컬푸드 사업과 두레농장 운영의 경험 등 공동체 기반을 살려 농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전하게 된다.

초기 농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 주체들은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이 주를 이루었다. 완사넷은 개별 조직들이 지원사업에 도전하기보다 완사넷이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사업 전면에 나서는 전략을 취했다. 사회적농업을 통해

5) 이 사업은 공동 생산, 공동식생활을 통한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 및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다. 공공이 지원하는 농업생산시설(두레농장)에서 농촌 마을의 농민과 귀농자가 함께 친환경 농사를 짓는 모델로 지역 내 로컬푸드와 연계하고자 추진되었다(김태완, 2016).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들에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예산을 나누어 지급했다. 2018년에는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두레농장들을 활동무대로 활용했다. 한 해당 적게는 2개 농장에서, 많게는 6개 기관까지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조직들을 인큐베이팅 하였다. 지원사업 마지막 연차인 2022년에는 총 3개의 농장을 지원하였고 네트워크 조직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중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별도로 사회적경제를 조직하거나 (키울협동조합), 사회적농업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더불어해봄 사회적협동조합)이 형성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완사넷은 완주군 사회적농업의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완사넷을 통해 지원받아 운영된 농장 중 세 곳(꿈바라기 농장, 키울협동조합, 은혜의 농장)을 방문하고 조사하였다.

1.2. 완주지역 사회적농장 실천 사례

1.2.1. 꿈바라기 농장

‘꿈바라기 농장’은 다정다감협동조합(이하, 다정다감)이 운영하는 사회적농장으로 2016년 성인 장애인들의 자조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농촌 지역의 성인 장애인들이 근무 외에는 할 수 있는 취미나 사회활동들이 극히 제한적이었기에 자조적인 성격의 동아리를 만들어 농장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2018년 완사넷에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활동을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으며 본격적인 사회적농업 활동을 추진하였다.

농장이 있는 마을은 100가구 남짓 있는 작은 마을로 마을회관 앞에 앉아 있으면 온종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이다. 초창기 농장 활동을 하고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경계심을 가지며 기웃거리곤 했다. 이제는 농장 활동을 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농장 앞으로 나오신다. 사회적농장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완주문화재단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아 마을회관 앞에서 팜파티를 진행했다. 그때 마을 이장은 “30년 가까이 이장하면서 마을회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던 게 처음”이라고 들뜬 마음을 표

현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7년을 마을주민들과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농장을 가꾸어 왔다. 마을주민들은 꿈바라기 농장이 농업다울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든든한 농업 기반이 되어주었다. 다정다감은 마을주민들의 농산물을 소비해주거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마을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다. 지역과의 호혜적 관계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마을에서 저희가 농장 활동을 하면 농사 멘토분들한테 돈을 지급하잖아요. 얼마가 됐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용돈벌이라도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활동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저희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농장활동 할 때 지역 어르신들을 더 많이 불러서 최대한 많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려고 했어요. 이런 활동을 만약 한두 번 가고 말면 ‘아 저것 또 왔다 갔네’ 그리고 말 텐데 저희가 7~8년 이상 움직이니까 동네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다정다감 대표 인터뷰)

“마을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만 하는 건 아녜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팔빙수를 한다. 그러면 팔을 동네 할머니들한테 (팔을) 구매하거든요. 할머니들이 키운 팔을 사서 저희가 삶아서 팔빙수를 한다는 거를 저희 직원들은 알지만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팔을 파는 할머니들은 ‘내 팔이 저 집에 쓰인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타지에서 오면 카페로 팔빙수를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팔을 팔기도 하지만 같이 먹고 사는 또 고객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다정다감 대표 인터뷰)

지역 주민과 함께 농산물 수확과 판매 외에도 직접 키운 채소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수업도 진행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매주 가졌다. 농업 활동 외에 수공예 활동과 요리 활동까지 더해 발달장애 청년들의 여가선용 및 자립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회적농업 활동의 가장 큰 효과는 참여자인 발달장애 청년들의 변화다. 가족 외에 소통하는 타인이 거의 없는 청년들이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집이나 시설 외에 갈 수 있는 공간이 늘어간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주체적인 경험을 할 기회도 농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저희 발달장애 직원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10개도 안 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이마저도 가족들 아니면 시설의 복지사 선생님 정도, 그 이외에 소통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을 100여 명 만들어준 것, 함께하는 청년들이 알게 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정다감 대표 인터뷰)

“사업비랑 저희가 여기서 밥 팔고 음료 판 그 돈만 가지고 오롯이 여기(사회적 농업 활동)에다가 투자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한 30% 보태면 이곳저곳에 있는 사업비를 끌어오고 활용하는 일들을 한 6~7년 했더니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파티를 한번 해보자’ 하고 던져놓으면 뭘 먹을 건지, 누가 뭘 할 건지, 어떻게 정리할 건지가 계획이 세워지는 팀이 되어 있어요.” (다정다감 대표 인터뷰)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어제도 ‘뭐가 제일 좋냐’ 물어보면 일하는 건 사실 별로 안 좋다고 해요. 모여서 노는 거, 어디를 가는 거, 그래서 늘 ‘다음에 뭐 해요?’가 입에 붙어있어요. 농장 활동이면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돼요. 뛰어다니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고요. 여기서 목소리가 기어들어 가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농장에 가면 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다정다감 대표 인터뷰)

장애 청년들은 농장 활동을 통해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농민, 상담사, 복지사,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원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반복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장애 청년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작업장 외의 활동을 하며 장애 당사자들의 주체성을 키워갔다. 간단하게는 작물을 선정하고 어떤 농작업을 할지, 언제 실지를 정하는 일부터 외부 활동에 참여할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자원을 끌어오기 위한 논의를 함께하는 등 다소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갔다. 보호작업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주체적인 활동이 농장 활동에서는 가능했기 때문이다. 농장 활동을 통해 보살핌과 책임감을 경험하고 이를 학습하며 돌봄의 객체가 아닌 돌봄의 주체로서 성장해 간 것이다. 이지선 외(2023: 166)의 연구에서는 사회

적농장에서의 발달장애인의 근로 경험은 ‘정상성(normality)’의 실현이라고 보았다. 사회적농업의 활동 과정에서 주어지는 과업을 수행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교류를 이어오고 농산물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 선택하면서 보통의 근로자라면 의례 경험하는 사회적 규범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정다감이 추구하는 목적 및 가치와 맞닿아 있다.

“(발달장애 청년들이) 여기에 안착하고 미래를 계획하려면 정말로 이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사업의 가장 큰 미션이 장애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와서 걸을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최대한 많은 경험과 기회를 이 친구들하고 만드는 거예요.” (다정다감 대표 인터뷰)

〈그림 3-1〉 꿈바라기농장의 사회적농업 활동 모습



자료: 다정다감 제공

〈그림 3-2〉 꿈바라기농장의 팜파티 활동



자료: 다정다감 제공

1.2.2. 키울협동조합

키울협동조합은 이랑협동조합의 사회적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조직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가족과 관계자들이 조합원이다. 2018년 완사넷의 연계로 비봉면에 위치한 두레농장에서 발달장애아 가족농장을 시작하였다. 2년여간 두레농장을 통한 사회적농업 활동을 추진하며 역량을 키운 결과 농업 활동에 참여한 발달장애 아동 가족들이 별도의 협동조합인 키울협동조합을 결성하였고 단독으로 농식품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독립적인 사회적농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키울협동조합은 사회적농업 활동을 시작하며 별도의 회비를 모아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지원사업의 보조금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농장 부지를 두레농장에서 이랑 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가 있는 마을의 텃밭으로 이전해 키울협동조합만의 농장을 조성하였다.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장을 고용하고, 텃밭 농산물을 기반으로 가공품 제작을 시도하는 등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까지 200만 원을 밑돌던 매출이 2020년에 250만 원, 2021년에 300만 원으로 조금씩 오르다 2022년에는 약 900만 원을 달성했다. 2020년 이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농자재나 설비,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 등을 지원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덕분이기도 하고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 판매가 확대된 이유도 있었다. 2022년에 수확 및 판매한 농산물은 17종⁶⁾이 넘는다.

상대적으로 농업 활동의 전문성이 약했던 키울협동조합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직 운영자와 가까운 관계의 농민이 농사일을 전담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주 인력이 있는 아동발달 통합지원센터 옆으로 농장을 옮기며 농장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늘었고, 마을주민들이 농사 선생님이로 활동해주며 농작물 생산이 더욱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 키울협동조합이 다른 사회적농장과 다른 점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다. 아동의 부모들이 참여하며 농작물을 함께 가꾸고 농장 설비나 운영을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함께하였기에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회적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아동들은 신체활동과 재할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일

6) 대표적으로는 여주즙과 고구마, 엑기스(아로니아, 개복숭아, 매실, 수세미), 건조 대추, 건조 여주, 은행, 아로니아 가루, 아로니아 비누, 단호박, 가지, 오이, 방울토마토, 상추, 땅콩 등이다(자료: 이랑협동조합 대표)

상생활 교육,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훈련의 효과를 얻는다. 사회적농장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부모 한 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눈치 보거나 제지당하지 않고 장애의 특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농장은 장애아동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해소와 해방의 공간이다.

“주말에 갈 데가 있어서 좋아요. 아이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적으니까요. 키울농장은 같은 장애아 부모들이 서로의 아이를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씨를 뿌리고 흙을 덮을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해요. 아이도 농장에 가는 날을 좋아해서 키울농장에 가는 날이라고 말해주면 도착할 때까지 키울농장 이야기를 계속해요.” (완사넷, 2023: 52)

농장은 작은 사회로서 장애아동들의 사회화 역할을 한다. 농장 활동과 프로그램에도 규율과 규칙이 있다. 장애아동의 가족들이 돌아가며 도우미 가족으로 활동하며 그 속에서 아동들이 직접 다른 참여자의 출석을 체크하고, 코인과 간식거리를 교환해주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참여 아동들은 농장 안에서의 규칙을 정하고 따르며 사회적 활동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장애아동들의 일상생활 훈련에 꼭 필요한 활동이다.

“매점에서 장애아들이 코인을 내고 물건을 사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립해 일상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교육 중 하나예요. 자기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코인을 나눠주고, 또 간식으로 바꾸려면 코인을 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코인을 안 내고 가져가면 자기들끼리 안된다고 제지하기도 하고요. 몇 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해요. 나름의 규칙도 있고요.” (이랑협동조합 대표 인터뷰)

키울협동조합의 활동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기에 장애아동의 가족이 겪은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엄마 모임, 아빠 모임과 같은 부모지원 프로그램과 비장애 자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등이 그것이다. 농장 활

동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보호자와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지만, 그 외 활동은 가능한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분리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들이 돌봄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고 비슷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키테이(Kittay, 2015)가 말하는 평등한 돌봄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지원⁷⁾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엄마 모임과 아빠 모임을 할 때면 그 시간만큼은 상대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보거나 이랑협동조합 직원들이 장애아동을 돌본다. 모임에는 맛있는 음식과 술도 곁들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서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터라 함께하며 위로와 위안을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한다.

“한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던 시기에 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토마토를 심고 돌아가서는 ‘그래도 토마토 심었는데, 꽃 피는 것까지는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 꽃을 보니 ‘토마토는 하나 따 먹어보고 가야지’ 생각하고요. 그렇게 몇 달을 농장활동 하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과 똑같은 혹은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너무 밝고 열심히 하는 장애아 부모들, 가족들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농장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감격이에요.” (이랑협동조합 대표 인터뷰)

키울협동조합은 완사넷의 사회적농업 인큐베이팅 기간 2년을 거쳐 단독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한 지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작년까지는 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인 이랑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장애아 가족(15가족)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범위를 넓혀 외부 가족(5가족)까지 총 20가족이 함께 하고 있다. 다년간의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안정기에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원사업이 종료

7) 키테이(Kittay, 2015)는 돌봄 사회란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 그 돌봄 관계에서 착취당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살아있는 사회라고 보았다. 즉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돌봄 필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돌봄 제공자가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착취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된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키울협동조합은 사회적농업의 지속 가능 전략으로 키울협동조합의 강점인 조직의 주체성과 당사자성을 내세우고 있다. 조합원의 대부분이 당사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아동발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에 지원사업의 보조금에 기대기보다는 회원들의 자조적인 참여(회비 및 활동)와 사업을 통한 수익을 다시 조직에 환원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의 청사진을 그리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을 견뎌낸 힘이 조직과 활동을 이어오는 기반이 되었다.

“키울협동조합 농업 활동으로 수익이 생긴 작년에 약 800만 원 정도를 저축했어요. 앞으로 지원사업 끝나면 자립해야 하니까, 자립 밑천으로 계속 적립하는 거죠. 지원사업이 끝나고도 계속 농업 활동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활동도 없어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보조금을 받기도 하지만 보조금에 메이는 순간 앞을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의존하게 되고요.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차량 이용료를 작년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비용도 똑같이 나누지는 않아요. 참여 아동의 가정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하여 별도로 책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 그리고 서비스 참여자들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식의 참여들이 어느 정도 틀을 잡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도 겪어봤으니 해 온 것처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랑 협동조합 대표 인터뷰)

또 하나의 전략은 지역사회 조직들과의 연대이다. 특히 협동조합 간 협동의 힘은 이랑협동조합이 완주지역에 정착하고, 키울협동조합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원천이었다. 키울협동조합은 이랑협동조합의 활동 과정에서 파생된 협동조합이다. 단순히 자조 모임을 넘어 그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로 조직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을 단독으로 받고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 내에서도 여러 활동을 추진하지만, 이랑협동조합과 키울협동조합의 끈끈한 연대가 두 조직이 함께 성장해 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랑협동조합은 그들의 활동이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가정의 문턱을 넘어 ‘아이들을 위한 돌봄체계’로 확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센터

등을 완주군 소셜굿즈센터의 공간에서 운영하는 식이다. 이는 일상적인 돌봄이 지역 안에서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큰 흐름이다. 그 중심에 사회적경제 조직인 이랑협동조합과 키울협동조합이 있다.

〈그림 3-3〉 키울농장 내 간식냉장고와 키울농장 전경



자료: 필자 촬영

1.2.3. 은혜의 농장

은혜의 농장은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이하, 더불어해봄)이 완주군 소양면에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농장이다. 더불어해봄의 모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은혜의 동산(이하, 은혜의 동산)이다. 은혜의 동산은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에게 가정 형태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 자립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다.⁸⁾

은혜의 동산이 사회적농업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2018년 완주군 사회적경제포럼의 장애인 분과 회의였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일거리가 필요했고, 사회적농업이 소일거리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이효진, 2022). 2019년 3월에 인덕 두레농장을 임차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 10명이 농업 활동을 시작했다. 은혜의 동산이 인덕 두레 농장을 1년 정도 운영하다 시설 용지로 옮기며 은혜의 농장이 설립되었다.

2020년 3월에 은혜의 동산 인근 부지의 텃밭을 임대하며 비닐하우스 4동을 지었다. 자재비는 기관 대표의 사비로 충당하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일은 지역 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시설과 인접해 있어 참여자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은 높아지고 농

8) 은혜의 동산 블로그(blog.naver.com/grhilll)에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을 활용한 사업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공동체 공간의 기능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농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돌봄 사업을 모색하였다. 이에 2021년 9월 은혜의 농장 활동 주체들이 구심점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인 ‘더불어해봄’을 조직하였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곧바로 2021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지역서비스 공동체 유형으로 선정되었다.

농장 활동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돌봄 활동을 위해 더불어해봄을 설립하고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조직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전까지 노인학교를 했던 소양면 교회협의회를 찾아가서 어르신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네트워크가) 시작되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 봉사활동도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했구요. 그러다 그 옆에 있던 방법대에서도 오셨고요. 지역 어르신 병원 다니고 건강관리가 필요해서 마음사랑 정신 도립병원, 예손한의원 등 찾아다니며 같이 해주십사 말씀드렸어요. 원래 해오던 농장 활동과 치유프로그램에 이런 활동들을 추가하면서 지역사회 여러 기관에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더불어해봄 돌봄반장 인터뷰)

더불어해봄은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조직과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면 단위 행정조직은 물론,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주민조직, 사회적경제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할 협력자를 찾고, 만나고, 의논하며 연결망을 넓혀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필요와 자원을 조직하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더불어해봄이 1년 6개월 동안 연계한 지역사회 기관들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소양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같은 지역행정기관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 3곳, 중간지원조직 2곳, 사회복지시설 5곳, 민간 조직 4곳, 주민조직 4곳 등 총 20개소에 이른다(이현진, 2024: 114-115). 더불어해봄은 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생활 돌봄을 실천하고 지역 노인교실을 운영한다. 핵심은 이러한 서비스를 지역 주민의 힘으로 조직하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해봄이 실천해 온 사회적농업 활동에서부터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느슨한 연대의 과정이다.

“은혜의 농장에서 수확한 배추를 좀 뜻깊게 쓰면 어떨까 해서 소양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김장 나눔을 한번 했어요. 삼덕 무료 급식소 연계해서 200포기를 지역 어르신들, 무료 급식받으시는 어르신에게 한 통씩 전달했죠. 그게 계기가 돼서 2022년에 농장 활동 이어서 삼덕 무료 급식소에 도시락 지원도 했어요. 이런 일을 한다고 삼덕교회에 알려지니까 삼성 봉사대하고 연결되어서 어르신들 댁에 전등 갈아주고 수도 고치고 방충망 갈아주는 일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어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회원들이 연결해 줘서 미용 봉사해 주시는 분도 만나고, 또 다른 봉사대가 결성되고…….” (더불어해봄 돌봄반장 인터뷰)

더불어해봄의 생활 돌봄 활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은혜의 농장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싶지만 마땅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들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돌봄의 장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공동체 돌봄의 장에 자연스럽게 소속되고 연결되며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을 형성해가고 있다.

〈그림 3-4〉 더불어해봄의 사회적농업 활동 모습



자료: 완사넷, 2023 갈무리

2. 제주지역 사회적농업과 사회적농장

2.1. 제주지역 사회적농업 발전 배경

제주도는 전국에서 사회적농업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지역이다. 제주도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형 사회적농업 구축 TF팀을 운영하고 그 성과로 ‘제주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2019년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며 제주형 사회적농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 농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1개소를 포함하여 ‘제주형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4개소를 선정, 총 5곳의 사회적농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농식품부형 사회적농장 1개소와 제주형 사회적농장 1개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2.2. 제주지역 사회적농장 실천 사례

2.2.1. 사회적농장 ‘담을밭’

‘담을밭’은 (주)밥상살림 영농조합법인(이하, 밥상살림)이 제주시 구좌읍에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농장이다. 밥상살림은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하, 한살림제주)이 가까운 먹을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8월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제주 담을밭의 모법인은 한살림제주이다. 한살림제주는 2008년 설립을 준비하면서 ‘지역살림’⁹⁾이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조합원을 위한 공동체 생태 텃밭을 만들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및 텃밭 활동 등 여러 농업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다양한 돌봄 활동을 시도해 왔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공부방을 개소하고,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리빙랩 활동을 통해 먹거리 돌봄 사업을 진행하며 공동체 돌봄에 대한 감각을 키워갔다.

한살림제주가 사회적농업을 지원한 것은 이러한 지역살림 실천의 일환이었다. 제주에서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사회적농업에

9) 지역살림은 한살림 조합원들이 다양한 삶의 위기에 직면하자 오랜 학습과 숙의를 거쳐서 2006년 한살림운동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추가된 비전이다.

주목한 것이다.

“제가 구좌지역으로 귀농하고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 너무 없고 고령화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좀 젊은 사람이 있어야 지역에서 교육이든 체험이든 할 수 있을 텐데, 지역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제주에 귀농·귀촌인들이 있고 지역 자연경관이나 농장들 자원이 있으니 귀농·귀촌인에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시작해보자. 그래서 다시금 지역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게 역할을 해보자 의견을 모았고요. 귀농하는 청년들이 막상 와서 텃세나 그런 것, 모르는 게 많은데 알려주는 사람은 없으니 조금 하다가 다시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농사 방법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옆에서 곤란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지역으로 왔다 가는 청년들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이나 중장년 귀농인분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과정을 개설해서 함께 하자…….”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국장 인터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작한 것이 ‘사회적농업 실천가 양성 과정’ 사업이다. 제주지역 귀농·귀촌인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영농 교육과 실습뿐 아니라 제주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 살이 방법 등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담았다. 이러한 귀농·귀촌 교육사업은 ‘귀농 정착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4기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이렇게 교육받은 귀농·귀촌자가 매년 3~5명씩 약 20명에 이른다.

〈표 3-2〉 사회적농업 실천가 양성과정 연간 교육계획(제2기)

주제		횟수	책임담당자
농업	지역농업관계자 현장교육	5회	한*호
	농산물판매 현장교육(공판장)	1회	
	농업관련 교재 교육 - 휴과 비료, 농업기술원 소득작물 자료	4회	
	친환경농업(인증관련)	1회	
지역	구좌마을 둘러보기	2회	한*호
	구좌마을 역사	1회	
	제주4.3 이해하기	3회	
	제주원도심 둘러보기	1회	
	마을사람 만나기(리장)	1회	
	제주생태관광 이해하기	2회	
사회적농업/경제	사회적농업 이해하기(교재 및 강의) - 일본/이탈리아/네덜란드 사례	4회	이*섭
	사회적경제 이해하기(교재 및 강의)	4회	이*섭
마케팅/홍보	농산물판매 및 온라인 활용	4회	김*수
기타	자율 주제	3회	참가자
총합계		36회	

자료: 담을밭 사회적농장. 2021. 「‘담을밭’ 사회적농업 실천가양성과정 2기 오리엔테이션 자료」: 6. 담을밭 내부자료.

담을밭 귀농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독특한 점은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가 다음 기수의 멘토가 되는 것이다. 교육받은 것을 실습하고 선배 귀농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며 더욱 단단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귀농·귀촌인들은 별도의 농장 부지를 활용하여 담을밭 교육에서 배운 사회적농업 활동을 그대로 실습해 보는 것이다. 교육생들은 돌봄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에 사회적농업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돌봄의 대상에서 지역사회 활력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농장이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더 넓은 차원의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담을밭과 연계하고 있는 제주 한살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담을받은 한살림제주에서 하는 지역 돌봄 사업과 이 사회적농장이 가지고 있는 농촌 돌봄이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된 거고(...) 구좌 공동체 대표님이 담을받 대표하고, 저하고 귀촌한 청년 이렇게 세 명이 운영했죠.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기회에 신촌지역으로 확대되었어요.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고 생산자연합회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다른 농장 부지를 임대할 수 있었죠. 신촌 부지가 나왔을 때 누가 운영할 것 인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2기까지 진행되었던 때라 1기, 2기 수료생들 몇 명하고 신촌 부지 가보고 그러면서 수료생들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할 수 있었죠.”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국장 인터뷰)

이렇듯 평소 한살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해 온 생산자와 조직이 있었기에 사회적농장은 공동체 자산이 될 수 있었다. 농장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교류하며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농장의 수확물까지도 나눔 냉장고,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사회적농업 활동의 결과인 수확물은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가 된다. 담을받에서는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농장 활동뿐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수확하면 원칙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소방서 이런 데에 다 나눠줘요. 그리고 남은 걸 어떻게 나눌지 수확한 사람들(참여자)이랑 결정하는 거야.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랑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때 옥수수를 천 개를 심었어요. 그래서 수확한 걸 파는 거야. 그때 애들이 그 옥수수 자기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물 한번 준 거 빼고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하면서 애들하고 논쟁 끝에 원칙을 정했어. 너희가 파는 가격은 너희가 결정하는데, 물건 가격의 20%는 사회공헌 기금을 낸다. 그리고 직접 판다. 그래서 오일장에 가서 4번 팔았어요. 장날에. 처음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잘 팔아와. 기금 내고 남은 돈은 또 자기거래. 근데 농장에 적게 온 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원칙을 정했어요. 참석한 시간당 배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주 왔거든. 8명이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꾸준히 제일 많이 온 애가 3만 원 받아 갔어요. 그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에다 기부했지.”

(담을밭 대표 인터뷰)

이렇듯 담을밭에서는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대상들과 함께하는 농업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활 프로그램이다.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는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장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과 장애인들이 주기적으로 최대한 자주 농장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에게 농업 활동이 단순히 체험 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활과 돌봄의 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시간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담은 활동일지 및 보고서와 장애 아동의 가족, 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 강사로 참여한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된 형태의 프로그램 계획을 마련하였다.

활동성이 없는 유○이와 활동성이 넘치는 온○를 동시에 돌보기 어려움. 특정하게 돌본다는 개념을 넘어, 여러 가족과 있을 때 농장에서 상호작용하기를 고려해야 함. (사회적농장 담을밭, 2022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활동일지 중)

농장 활동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이 농장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성과로서 민○의 낮가림이 완화되었고 유○이의 다채로운 표정과 흥미를 보임. 농장 활동을 위한 횟수는 15회차 정도의 활동 계획안이 필요함. 다만 부모와 동반하여 활동이 필요하고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어야 돌봄 활동으로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사회적농장 담을밭, 2022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활동 보고서. 2022년 10월 22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의 대화 중)

이러한 평가와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발달장애 아동 농장 프로그램인 ‘햇살 담은 팥’을 계획하였다. 장애아동과 가족으로 구성된 10개 팀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활동 횟수는 15회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은 농한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매달 2회 이상 농장에 방문하여 시기별 농작물의 변화와 절기에 맞는 활동들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된다.

‘햇살 담은 팥’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참여자 발굴과 신청 연계는 제주대학교병원 내의 ‘제주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담당한다. 활동 일부는 담을밭 옆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비자림숲힐링센터’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는 농업 활동 전문가(농장 대표) 외에 작업치료전공자, 원예환경전공자 등 3~4명의 전문 강사가 함께한다. 지역대학 출신 전문가나 담을밭 귀농 귀촌 교육 수료생이 전문 강사로 참여하는 식이다.

담을밭은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참여자들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의해 농장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농장 시설 및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정비하였다. 휠체어 높이에 맞는 박스 텃밭을 꾸리거나, 시각장애나 활동성이 적은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촉감과 향기가 나는 작물을 함께 구성하는 식이다. 이주여성들이 직접 가꾸는 열대성 작물은 작물의 특성에 맞게 덩굴 터널이나 온실 등 재배 환경을 갖추었다. 생물의 다양성을 지향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 기회도 존중하고자 한 것이다.

“저희 농장 구성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경제 작물,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열대 작물. 아열대 작물은 코로나 때 이주여성 참여자들이 (자기 생업에서)다 잘렸어요. 그때 이분들이 시간이 남는 거야. 그때 와서 우리랑 사탕수수 키워서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 공간인데, 여기는 참여 기관이나 그룹마다 공간 나누어서 할당해주고 ‘뭐 필요해요’ 하면 그냥 심어줘요. 한번 해보게 하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 아니까. 심고 싶다고 하면 다 심으라고 해요.” (담을밭 대표 인터뷰)

“이거는 당근 심어놓은 박스 텃밭인데, 휠체어 타는 분들이 농장에 와서 활동 하기가 힘들어요. 그분들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높이를 66cm로 맞춘 거예요. 폭도 드나들 수 있게 넓히고 여기에 당근이랑 다양한 것 심어놔요. 이파리 뜯고, 향기 맡고. 풀도 뽑고.” (담을밭 대표 인터뷰)

〈표 3-3〉 발달장애 아동 농장 프로그램 ‘햇살 담은 팥’ 운영계획표

차시	프로그램 내용	진행
1	- 오리엔테이션 및 개별 목표 설정(농장 소개 및 활동 소개)	한살림제주/ 생산자연합회 (사회적농장 담을밭)
2	- 텃밭작물 심기 - 이름표 등으로 텃밭 꾸미기	
3	- 농장 산책하기 - 들꽃과 채소꽃 모아 꽃다발 만들기	
4	- 나만의 허브 화분 만들기 - 로즈마리 방향제 만들기	
5	- 옥수수밭 산책 - 수확한 옥수수 찌서 먹어보기	
6	- 장애인: 신체활동(전통놀이) 및 목공체험 - 보호자: 체성분검사 및 상담, 테라피체험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센터비자숲힐링센터 (11:40~15:00)
7	-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기 - 바비큐 그릴에 구워 먹어보기	한살림제주/ 생산자연합회 (사회적농장 담을밭)
8	- 장애인: 신체활동(전통놀이) 및 천연물품 만들기 - 보호자: 스트레스검사 및 상담, 테라피체험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센터비자숲힐링센터 (11:40~15:00)
9	- 장애인: 신체활동(전통놀이) 및 미니정원 만들기 - 보호자: 모세혈관검사 및 상담, 테라피체험	
10	- 수세미 알고 수확하기 - 수세미 청, 수세미 차 먹어보기	
11	- 뿌리와 연결된 줄기 찾기 - 흙에 묻힌 고구마 캐기	한살림제주 생산자연합회 (사회적농장 담을밭)
12	- 염색이 되는 식물재료 알아보기 - 옷감 염색하기	
13	- 콩 꼬투리 따기 - 콩 타작해서 낱알 분리하기	
14	- 굴껍질 벗기고 손으로 으깨기 - 만든 굴청 먹어보기	
15	- 땅 속에서 감자 캐기 및 크기 분류 - 사업마무리 (참여자 만족도조사)	

자료: 사회적농장 담을밭. 2023. 「햇살 담은 팥 운영안내서」: 4. 담을밭 내부자료.

〈그림 3-5〉 담을밭의 사회적농업 활동 모습



자료: 담을밭 제공

이 밖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 이주여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들이 담을밭 농장을 중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 담을밭은 농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여자와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각자 존재하지만 1년에 3번은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팜파티를 개최한다. 팜파티 주제는 절기에 맞는 작물에 따라 달라진다. 초여름 감자 수확과 감자 찜 먹기, 작은 음악회, 옥수수 수확 및 나눔, 고구마 수확과 바비큐 파티와 같은 즐길 거리를 준비한다. 이때에는 장애아동과 가족,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선생님, 이주여성, 지역 농업인, 담을밭 수료생들이 함께하며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계를 확장하는 경험을 한다. 참여자들이 다양한 사람과, 지역과, 농작물과 더 많이 접촉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만들어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농장 담을밭의 목표이다.

2.2.2. 제주형 사회적농장 ‘일배움터’

일배움터는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¹⁰⁾’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시설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예, 농장체험 등 농업 활동을 이어왔다. 2020년에는 제주형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을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농업과 관련하여 행정의 보조금을 받는 유일한 조직이다.

일배움터의 사회적농장은 ‘플로팜’이다. 텃밭과 유리온실로 구성된 사회적농장에서 시설 장애인들의 돌봄 활동 및 작업 재활 치료, 심신 안정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들의 자립과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페 플로베’를 운영하고 있다.

플로베에서는 플로팜에서 생산한 원예작물과 도자기 등을 판매하고 보호작업장에서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하여 만든 커피를 판매한다. 플로베는 제주도청, SK사육, 롯데면세점에 입점해 있다.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판매에 장애인 당사자는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도청이나 대기업 건물처럼 지역 주민과 일반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남들처럼 그렇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당사자와 보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배움터 안에서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플로베에서 직업훈련을 하는 장애인들은 수개월 동안 농장 활동, 원두 가공과 포장, 음료 제조와 카페 장비 다루기, 손님 응대와 서비스교육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육받고 훈련한다.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을 위해 각각도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전문 강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농장은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초작업 중 하나다. 일상 활동 경험이나 신체

10) 여기서 ‘황새왓’은 “황새가 나는 밭”이라는 뜻으로 제주 ‘황사평’의 옛 지명이다. 황사평은 제주 천주교 순교자 묘역이 있는 성지이며 지금은 천주교 제주교구의 공동 안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카리타스(Caritas)는 사랑, 애덕, 자선이라는 뜻의 라틴어이다(일배움터 홈페이지 참고) ‘제주황새왓카리타스’는 제주 가톨릭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2013년 분리되어 사회복지 활동을 실천해 왔다. 제주지역에서 ‘애덕의 집’, ‘가롤로의집’, ‘일배움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성가정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적 훈련, 일련의 복잡한 농작업 활동을 익히거나 반복적인 활동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농작업이 매우 유용한 활동이 된다. 거주 시설 안에서의 활동보다 역동적이고 고된 활동은 장애인들의 신체 효능감을 높이고 이들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활동에 참여한 보호자들이 ‘농장에 갔다 오면 잠을 잘 잔다’며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농장 활동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다. 흙과 식물을 만지며 얻는 정서적 안정감도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다.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도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보지만, 대상자들의 변화나 활동 효과를 비교적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농장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림 3-6〉 일배움터 플로팜의 활동 모습



자료: 필자 촬영

그렇다고 모든 당사자와 보호자들이 농장 활동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농장 활동에 한두 번 참여해 보고 ‘못 하겠다’고 하는 대상자나 ‘이런 일을 우리 아이(장애인 자녀)에게 시킬 수 없다’고 돌아가는 보호자도 있다. 그럴 땐 가능한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지역자원을 연계한다. 사회복지시설이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한편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한계로 인해 고도로 복잡하거나 고된 농업 활동, 매우 덥거나 추운 날, 급격한 날씨 변화와 같은 변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작업은 전문 농업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유리 온실,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농업인을 고용하는 식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농장들이 프로그램 강사를 고용하고 대상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이나 교육을 받는 것과는 반대이다.

2020년 제주형 사회적농장에 선정된 후 지원금을 받은 지 4년째이다. 다른 농장

들과 달리 일배움터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자립에 대한 고민이 비교적 덜하다. 지원사업 이전에도 시설 차원에서 농장을 운영해 왔고 농장을 포함한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품의 판로가 튼튼하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인증기관으로 공공기관 및 지역조직 등 다양한 곳에 판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다년간의 노력으로 카페, 케이터링 서비스, 관공서 조경 관리 등 다양한 수익 구조를 구축해두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정해진 전문인력의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큰 자원이다.

사회복지시설이 가지는 공공성이 사회적농업 활동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도 다른 사회적농장과 차별점이다.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적농장은 농업인 개인의 활동이나 수익 활동을 위한 매개로 오해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배움터의 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적 활동’이라는 공공성, 공익성이 대중들에게 알려져 지역사회로의 접근과 연계가 잘 이루어진다. 농업회사법인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운영하는 사회적농장이 사회적농업의 공공성을 농장 활동을 통해 어떻게 더 드러내고, 지역사회에 그 가치를 확산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일배움터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농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들이 더 잘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일배움터는 사회복지사와 직업재활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인력이 상주하기 때문에 농업 활동 외에 중요한 사례관리나 대상자를 위한 전문적 돌봄, 문서나 행정업무 등이 용이하다. 반면 농업 활동에 대한 이해나 전문인력은 부족하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농장들은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을 기획하면서 동시에 참여자들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활용하지만, 그 형태가 자원봉사, 보조강사, 몇 개월 단위의 계약직 등이 최선이기에 전문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 농업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서작업과 행정 처리도 큰 걸림돌이다.

사회적농업 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된 제주지역이지만 여전히 관련 조직 간의 연계, 직능단체들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자리나 기회도 많지 않았다. 사회복지와 농업,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경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만큼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농장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사회적농장 비교

구분	완주지역 사회적농장			제주지역 사회적농장	
	꿈바라기농장	키울협동조합	은혜의 농장	사회적농장 담을밭	일배움터 '플로팜'
모법인	다정다감협동조합	이랑협동조합	은혜의 동산	한살림제주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운영 주체	다정다감협동조합	키울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주)밥상살림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시설 일배움터
대표자	다정다감협동조합 대표	키울협동조합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한살림 구좌생산자공동체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지원 유형	2022년 지원사업 종료 후 자체운영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농장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서비스 공동체 지원사업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회적농장	제주형 사회적농장 지원사업
연차 (237년)	-	3년 차	2년 차	4년 차	4년차
활동 배경	성인장애인 자조활동	발달장애아동 돌봄 및 장애아동 가족 자조 활동	장애인 소일거리 창출	귀농인의 지역 정착 문제해결	시설거주 장애인의 직업훈련 자립 지원
핵심 연계 조직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랑협동조합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은혜의 동산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 사회적농업연구회	법인 산하의 복지시설, 공공기관 및 지역복지조직
주요 참여자	장애인 및 고령농업인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	지체 및 발달장애인, 아동, 노인	귀농·귀촌인, 지역 아동, 이주여성	발달장애인
주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성인장애인 자조활동(주1회) 돌봄 프로그램, 성교육 및 자립활동, 요리활동 및 공동식사 프로그램	발달장애아 가족농장 발달장애 아동 및 가족의 돌봄 활동, 정서지원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역량 프로그램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치유농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미용 서비스, 병원 동행 등 일상 돌봄	귀농·귀촌인 교육과정 운영, 발달 장애아동과 가족 농장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 농장 등	발달 장애인 돌봄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치유농장 프로그램, 인성교육, 도자기 공예, 원예 및 카페 사업의 수익구조 갖춤
유형	복지형	협동조합형	복지형	농업형	복지형

IV. 사회적농업의 공동체 돌봄 특성 분석

1. 주체성

사회적농장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체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자가 핵심 주체로 등장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마을의 고령농이나 소농, 여성 농민과 같은 지역 주민이다. 꿈바라기 농장, 은혜의 농장, 키울협동조합의 경우 농장 인근 마을의 농업인들이 농사 멘토가 되어주고 수시로 농장을 관리하는 등 농장 활동의 핵심 참여자가 되었다. 담을밭의 경우 농장의 대표와 운영진이 모두 지역 농민으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농업 전문가였다.

둘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 주민이 농장의 운영과 사업을 관장하고 지역을 조직한다. 더불어해봄의 활동가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지역민이며 모법인은 완주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누적된 활동 경험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고 자원을 동원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담을밭도 운영자의 애향심과 문제의식이 사회적농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농업 활동을 통해 각자의 방법대로 자립을 추구한다. 꿈바라기 농장은 농업이 발달장애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이지만 담을밭에 참여하는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는 생업과 관련된 것이다. 키울협동조합은 발달장애 아동의 가족들 간의 돌봄과 연대가 주 활동 목적이지만, 더불어해봄은 마을과 지역 차원의 돌봄이 목적이다. 이처럼 농업 활동 참여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각 주체들이 추구하는 자립의 수준이 다양했다.

넷째, 돌봄 행위의 주체가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와 지역주민이다. 이때 돌봄은 전문성과 특수한 기법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치료적 접근은 아니다. 농업 활동은 돌봄을 받는 자와 주는 자가 구분되지 않는 활동들이 일상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 서비스와 차이를 가진다. 생활 시설 안에서 장애인은 돌봄을 받는 수혜자이지만 농장에서는 농작물을 돌보는 주체가 된다. 노인 교실에서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상자이지만 사회적농장에서는 발달장애 청년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된다.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 귀촌인은 교육생이지만 수료 후 지역 아동의 농업 활동을 이끄는 지역 농민이 된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들은 사람들이 모이고 의견을 나누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했을 때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될 때 지속가능할 수 있다.

2. 연결성

사회적농장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결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체계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사회 연결망을 활용한다. 제주 담을밭은 한살림제주의 구성원과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의 결과이다. 담을밭의 운영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이다. 밥상살림은 한살림제주의 생활재 및 제주지역 지역 먹거리 유통을 위해 한살림제주가 설립한 자회사이다. 한살림제주의 지역살림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시도된 공동체 텃밭 활동을 사회적농업의 이념과 가치를 담아 지역사회 활력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담을밭을 구상하였다. 담을밭의 대표는 한살림제주 생산자연합회 구좌공동체의 대표이며, 핵심 활동 인력 역시 생산자연합회의 일원이다. 담을밭의 농업 실천은 전적으로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회적농장 활동을 통해 다시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의 충원으로 연결된다. 이는 향후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며 담을밭 사회적농업 실천의 목적이다. 완주의 사회적농장들의 경우 완주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인 완사넷을 바탕으로 넓은 지역사회 연결망을 갖추었다. 완사넷은 완주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뿐 아니라 완사넷의 분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더 많은 관련 조직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완주군 지방행정과 결합하여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실천 환경 속에서 조직 대내외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둘째, 사회적농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영역이 결합한다. 처음 활동은 사회적농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기관과의 협조(cooperation) 활동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전문적인 기관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진 활동을 추진하는 연합(coalition) 단계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더불어해봄은 사회복지법인을 모법인으로

하여 지역복지 관련 영역과 이해도 높은 협력을 이어왔다. 뇌병변 장애인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은혜의 동산은 완주 소양면 지역에서 오랜 활동 역사를 가진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복지 네트워크가 두텁다. 이러한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행정과 여러 복지영역과 연계하며 짧은 시간 동안 지역 곳곳에 적재적소의 돌봄 활동을 실천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농업 실천 주체 간의 연대는 사회적농업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주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거점농장과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주지역의 독자적인 사회적농업 발전을 위한 연대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사회적농업 실천 주체뿐 아니라 사회적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연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참여도 돋보인다. 제주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생력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지역 사회적농장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사회적농업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해가고 있다. 완주는 완사넷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거점농장 지원사업을 토대로 지역 중심의 사회적농업 실천을 이루어 왔다. 완사넷과 연계하여 사회적농업을 실천해온 핵심 참여자들은 완주지역 출신이거나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이들로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 지역문화 및 성격에 대해 누구보다 밝으며, 지역의 사정 및 어려움 역시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가는 사회적농업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나드는 연결(김정섭, 2023: 12)이 필요하다. 특히 돌봄 실천을 위해서는 비농업 분야와의 다양한 형태의 연계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공동체 돌봄에서 연결은 곧 자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례의 사회적농장들은 자신의 농업 기반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결망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서로 의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3. 관계성

사회적농장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농업을 통한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며 교량적 관계의 기회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농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접촉의 빈도와 시간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 담을밭의 팜파티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사회적농장의 사업은 각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자와 기관이 각자 존재하지만, 정기적으로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팜파티를 개최함으로써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계를 확장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정다감은 꿈바라기 농장에 참여하는 장애 청년들이 농사 외에도 자조적인 동아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기획의 일부를 참여자들에게 맡긴다거나 농업 외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체육, 교육, 사회활동을 지속해 가며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소속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더 높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결속적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 담을밭의 귀농·귀촌인들은 1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농업과 지역살이를 배우게 된다. 이들은 수료 이후 다시 다음 회기 교육생들 지도하는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른 마을의 사회적농장에서 실습을 이어갈 수 있다. 이들은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학습과 수련을 반복하며 농장의 구성원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로서 결속적 관계를 강화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이후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의존하며 연대할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키울협동조합은 사회적농업을 통해 맺어진 교량적 관계가 활동을 지속하며 결속적 관계로 발전하여 새로운 돌봄 공동체를 구축한 경우다. 시작은 이랑협동조합의 발달장애 아동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었지만 활동을 지속하면서 당사자들 간의 필요와 욕구,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키울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서로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며 돌봄 관계망을 단단히 이어가고 있다.

셋째, 공동체 돌봄에서 결속적 관계는 사회적농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결속적 관계를 통해 지역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교량적 관계는 참여자들의 삶에 즐거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완사넷은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사회적농업을 이해하는 사회복지사가 참여자를 1대1 대면 면접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아 가정, 시설 이용 노인, 다문화 여성, 시설 비거주 성인 장애인이 사회적농업 참여 후 '나에게 달라진 변화'로서 모두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

는 것이 즐겁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참여자들이 정기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 어울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량적 관계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삶에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4. 자산기반성

사례를 통해 살펴본 사회적농업의 공동체 돌봄으로서의 자산기반성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농장은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완주의 두레 농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10여 년이 지나면서 참여자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어버린 두레 농장의 공간을 사회적농업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는 공동체 공간이 되었다. 다만 사업이 이어지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다시 특정 주체나 시설의 한 부분으로 귀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농업을 진행하는 다른 농장들에서도 공통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둘째, 사회적농업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이바지한다. 담을밭을 설립할 때 처음부터 한살림제주와 밥상살림, 한살림 생산자들과 돈독한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평소 한살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해 온 생산자와 조직이 있었기에 사회적농장은 공동체 자산이 될 수 있었다. 농장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교류하며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농장의 수확물까지도 나눔냉장고,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사회적농업 활동의 결과인 수확물은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가 된다. 담을밭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 원칙을 세우는 경험은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된다.

지금까지 공동체 돌봄의 특성인 주체성, 연결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적농장은 돌봄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되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된 돌봄의 장은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V. 결론

한국은 개인 자산기반 복지국가로 공적 복지의 공백을 비공식 복지, 돌봄의 주체인 개인(가족)에 맡겨두었다. 돌봄의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비전으로 공동체 자산기반 돌봄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 연구는 공동체 자산기반 돌봄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공동체 돌봄에 주목하였다.

공동체 돌봄의 한 실천 유형으로 등장한 사회적농업은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제도권 내에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모순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탈리아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은 경제의 논리, 시장의 논리뿐만 아니라 강력한 ‘생활의 논리’와 ‘지역의 논리’ 속에서 형성되었다(다나카 나츠코, 2014). 특히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낸 사회적농업 등의 활동은 공동체 돌봄의 중요한 모델이다.

공동체 돌봄이 대안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체성, 연결성, 관계성, 자산기반성이라는 특성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의 사회적농업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체 돌봄의 특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의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현장에서는 사회적농업이라는 개념부터 어렵고, 정체성이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농업과 돌봄이 농장이라는 한 공간에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으로서는 돌봄이 어렵고, 돌봄의 입장에서는 농업이 어렵다.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완주와 제주지역의 사회적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체 돌봄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완주는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넓고 깊은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비교적 작은 지역사회 단위 안에 많은 사회적농장이 구축되었고 더불어해봄이나 키울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돌봄을 실천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주는 지역적 특성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거점농장과의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주지역의 독자적인 사회적농업 발전을 위한 연대가 이루어졌다. 제주의 대표적인 사회적농장인 담을받은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

합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조합원, 생산자, 지역 주민이 연대하고 관계를 맺으며 운영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유형으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농장을 살펴본 결과, 공동체 돌봄의 특성이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사회적농장은 돌봄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의 전환을 꾀하며, 지역사회의 장으로서, 상호의존의 연결망으로서 부족함을 서로 채우는 지역사회 연결망이자, 사회 인프라로서 기능하며, 당사자만이 아닌 지역 구성원이 서로 돌보는 사회적 통합의 장이었다. 사회적농업의 프로그램이 일반 복지시설의 프로그램과 같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돌봄의 특성을 발휘하는 한 사회적농업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공동체 돌봄의 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은 사회적농업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지역 내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재생시키면서, 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지역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제도의 틈새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서로 의지하고 돕는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는 사회적농업뿐 아니라 공동체 돌봄을 실천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우선 사회적농업의 사례를 보면서 장애인, 이주여성, 노인, 어린이, 귀농·귀촌인 등 지역에서 이들을 맞을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2023년 사회적농업 법제화 이후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공동체 돌봄의 특성들이 발현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이다. 일터와 삶터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드러나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남훈. (2021).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 공동체 돌봄”. *농정연구* 77, 171-190.
- 김보영. (2021). “커뮤니티 케어가 아직 되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복지동향* 270, 47-53.
- 김승섭. (2017).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 김영란·조미형. (2023). “사회적농업으로 농촌복지실천이 가능한가?”. *비판사회정책* 80, 7-34.
-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0(3), 492-520.
- 김용득. (2019). “지역사회 기반 복지관의 공동체주의 지향성 강화 필요성과 과제-공공성 담론의 확장과 사회서비스 운영 원리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2), 203-232.
- 김은정. (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153-176.
- 김정섭. (2017). “사회적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 *모심과 살림* 9, 33-45.
- _____. (2018). “사회적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21-134.
- _____. (2020). “사회적농업의 이해”. *지역과 농업* 9-35. (사)지역농업연구원.
- 김정섭·김수린·하인혜. (2022).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 김태완. (2016). “지역먹거리 사업과 소규모 농민 생활의 변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고려대학교)
- 김흥주·이현진·김철규. (2013). “생협운동의 변화와 생협복지주의”. *지역사회학* 15(1), 187-221.
- 다나카 나츠코. (2014). 이성조 역.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지역전개*. 아르케.
- 담을밭. (2021). ‘담을밭’ 사회적농업 실천가양성과정 2기 오리엔테이션 자료: 6. 내부자료.
- _____. (2022).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활동일지. 내부자료
- _____. (2023). 햇살 담은 팥 운영안내서: 4. 내부자료.
-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역. *돌봄선언*. 니케북스.
- 류연구.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37, 113-153.
- 박윤혜·백일순. (2021).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31(1), 208-245.

-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론적 접근을 위한 시론”. *ECO* 21(1), 111-143.
- 석재은. (2020). *한살림과 돌봄운동*. 모심과살림연구소.
- 야스토미 아유무. (2018). 박동섭 역. *단단한 삶*. 유유.
- 에릭 클라이넨버그. (2019). 서종민 역.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웅진지식하우스.
- 오세근·이명호. (2022). “정신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당사자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합의와 사상적 체계화의 방향 설정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5(1), 105-148.
- 오영인. (2019).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포럼* 17(1), 16-21.
-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3). *완주 소셜굿즈센터 사업결과보고*. 내부자료
- 완주소셜굿즈센터. (2020). *완주소셜굿즈센터 활동백서*.
- 유리나·황수철. (2019). “사회적농업의 사회적경제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혁신 가능성의 탐색”. *농촌계획* 25(4), 151-159.
- 이미정·주경희·남세현·우승명. (2019). “당사자주의관점에서 본 성인발달장애인의 농촌지역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인문사회21* 10(3), 877-892.
- 이지선·한기명·장현옥·최려나. (2023). “발달장애인의 사회적농업 분야 근로경험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영농직업재활시설 S농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60, 145-172.
- 이현진. (2024).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연구*. (박사학위, 원광대학교)
- 이현진·김흥주. (2015). “생협복지의 의미와 실천: 서울 울림두레생협 사례분석”. *인문사회과학 연구* 16(2), 311-351.
- 이현진·김흥주. (2022). “사회적농업을 통한 공동체 돌봄의 실현 조건”. *지역사회연구* 30(1), 87-118.
- 이효진. (2020). “공동체 기반 사회적농업 실천 -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업* 9, 36-59.
- 임송수·임지은. (2017). “사회적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26.
- 장수정. (201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2), 1-31.
- 장지연. (2016). “고령화의 도전과 한 살림의 대응”. *생협평론* 25, 91-96.
- 전용일. (2019).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농업육성방안’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방안 고찰”. *법학논고* 67, 341-369.
- 조귀동. (2023). *이탈리아로 가는 길*. 생각의 힘.

- 조유성. (2020). “생협조합원의 돌봄 서비스 제공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8(1), 85-124.
- 최영. (2024). “돌봄권과 돌봄의 사회화”. *복지동향* 303, 12-20.
- 홍덕화. (2018).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이상과 현실: 한살림서울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2(1), 243-276.
- 홍용희 외 역. (2000). *질적 사례 연구*. 창지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농촌, 희망의 길을 걸어가다 -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 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 황수철. (2017). “다기능 농업의 확산을 위해”. *농정연구* 63. 농정연구센터.
- 힐러리 코텀. (2020). 박경현·이태인 역. *래디컬 헬프-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착한책가게.
- 佐野真紀. (2019). “自立を支援するとはどういうことか(2)-身体感覚から「みずから」と「おのずから」を感じる実践—”. *障害者教育・福祉学研究* 15, 19~24.
- Hassink, J. (2009). “Social farming across Europe: overview”. in F. Di Iacovo and D. O’Conner (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 Iacovo, F. D. (2009). Introduction, in F. Di Iacovo and D.O’Conner(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 Kittay, Eva Feder. (2015). “A Theory of Justice as Fair Terms of Social Life Given Our Inevitable Dependency and Our Inextricable Interdependency.” In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edited by Daniel Engster and Maurice Hamington, 51-7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